

갈망의 도시 벵갈로르

- SEWC 2007 참관기 -



프롤로그

6시간 비행 후 싱가포르에서 환승대기 6시간, 다시 4시간 비행. 녹록치 않은 여정이지만 시차는 3시간 30분. 퇴근 후 여흥이 길어져 새벽까지 어딘가에서 바람 쐬고 앉아있는 피로감이라 생각하니 그런 것도 같다.

인구 65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은 비좁은 공항시설, 경적소리로 소란스럽고 혼잡한 도로, 넓고 허름한 건물들, 비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등은 과연 인도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수도로 알려진 벵갈로르에 제대로 내린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역풍에 부딪칠 각오를 하며 봄비는 인파 속에서 겨우 찾아낸 호텔 픽업 토요타 승용차에 올랐다.

호텔 Grand Ashok

공항에서 30km가량 달려 'SEWC 2007'이 열리고 있는 호텔에 도착하였다. 여행 후에 지도를 보고 판단한 것이지만, 아마도 벵갈로르 변화가인 MG Road를 가로질렀으리라. MG는 마하트마 간디를 뜻하며, 인도의 큰 도시라면 하나씩 있는 길의 이름이라고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실제로는 여러 개의 정부로 나뉜 인도 대륙을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로서 인도 전역에 하나의 이름으로 된 길이 도처에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40개국이 넘게 참가하는 큰 행사를 유치하는 호텔의 입장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귀한 손님일 테다. 호텔 직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했으며, 호텔 건물과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흔치 않을 것 같은 이 과도기적인 도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모양이다. 스폰서 업체들이 모인 전시관과 대강당은 가건물로 지어졌고, 점심 식사는 천막 아래에서 해야 했으며 참가 등록도 동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형적 여건이 사소한 것으로 느껴지게 할 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희망에 차 있는 인도 사람들의 표정이다. 인도 현지의 현장 경험을 통해 알기 힘든 것들을 배우기 위한 열정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꽤나 묵직하게 느껴진다. 높은 곳에 있는 신선한 나뭇잎을 먹기 위해 닿지 않는 코를 연신 뻗어대는 굶주린 코끼리를 보는 것처럼.

Road of Bangalore

대회의장과 테크니컬 스피치가 열리는 홀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인도인들은 초고층 건물에 관심이 많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Session에서는 자리가 부족해서 선채로 들어야 한다. 분명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건축물의 역사를 강연의 주제로



대한민국 건물 역사에 관한 발표가 진행중인 대강당 전경



초고층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 엔지니어들

정한 것은 그들의 요구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대한민국의 경험을 모델삼아 현재의 인도에 대입해 보았을 것이다. 청중은 진지했으며, 스크린 위에 초고층 건물이 비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쉬가 터졌다.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역사는 1960년대로부터 시작된다. 80년대 초까지 20~30층의 중층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다가, 80년대 중반 대한생명 63빌딩을 시초로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20~30층 이상의 중층 건물들은 오피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고층 건물의 용도는 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근래 차츰 경제 규모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오피스나 공공시설물의 고층화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10층 정도의 건물조차 흔치 않은 벵갈로르의 거리가 30년 전 서울의 모습과 비슷할까?

인도인들의 열망을 이 복잡한 도시에 어떤 모습으로 소화해낼까? 벵갈로르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벵갈로르에 대해 어느 여행 책자가 소개한 글이 떠오른다.

“중국에 상하이가 있다면 인도에는 벵갈로르가 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희망의 도시. 제2의 실리콘 벨리를 꿈꾸는 IT산업의 중심지

가 바로 벵갈로르다. 1980년대 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와 모토롤라(Motorola)의 지점이 설립되면서 첨단 산업 도시의 면모가 갖춰졌고, 벵갈로르에 본사를 둔 인도 최대의 IT그룹, 인포시스(Infosys)의 성공이 이어지자 업계가 주목하는 곳으로 급부상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 벵갈로르의 첨단 산업 유치가 것처럼 일찌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차라리 의외였다. 첨단 산업이 유입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30년 전 서울의 모습과 비교하게 하는 것 같다.

차 한 대 보기 어렵도록 한산하던 벵갈로르가 이렇게 혼잡한 도시가 된 것은 불과 3년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 고가 전철이 한창 공사중에 있고 현대적 시설의 대형 호텔이 지어지면서 막 시작한 개발의 물결은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이 15미터 남짓한 고가도로 공사에 3년이 걸리기도 하고,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IBM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이곳을 한마디로 간추리기에는 좀 복잡한 듯하다. 어찌됐든, 글로벌 기업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로 평가 받고 있는 인도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10억 인구의 인도는 고급 지식층과 풍부한 젊은 노동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



빅반얀트리(Big Banyan Tree) 공원 입구



빅반얀트리(Big Banyan Tree) 공원 내부

능가에 벵갈로르의 미래가 달렸다는 생각을 해본다.

Sightseeing in Bangalore

인천행 비행기 체크인까지 남은 시간동안 벵갈로르에 있는 빅반얀트리(Big Banyan Tree), 쿠본파크, MG Road 근처의 커머셜스트리트(Commercial street)을 방문하기로 하고 한국인 여행 가이드와 함께 마지막 여정에 올랐다.

1시간 조금 넘게 비포장 도로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이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빅반얀트리. 반얀이라 함은 보리수를 말한다고 한다.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 일부 가지가 아래로 자라 땅속을 파고들어 뿌리를 형성해 본래 가지를 지탱하면서 옆으로도 자란다고 한다. 여러 개의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한 그루의 나무가 오랜 시간 자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성장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 나무가 자란 500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깊이 뿌리내린 굵은 가지들이 수없이 많다. 나뭇가지 사이로 난 오솔길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마다 신기하다는 말을 3번씩은 한 것 같다. 벵갈로르 인근의 자연 관광 자원으로서 주변에 상점들도 있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다.

빅반얀트리를 뒤로 하고 비포장 도로를 지나 카푸 술탄의 별궁으로 방향을 잡았다.

1700년대 후반 마이스르 전쟁에서 영국군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티푸술탄이 이곳 벵갈로르에 방문할 때 머물던 장소라고 한다. 건물의 기둥과 바닥이 모두 돌로 지어졌지만, 구조물의 장식이 화려하고

벽지를 바른 듯 규칙적으로 판화를 찍어 만든 무늬는 전체적인 건물의 느낌을 부드럽게 해준다. 계단을 올라가면 양쪽의 내실을 연결하는 복도에 약 1m²가량의 바다판이 남북으로 돌출되어 있다. 기념 촬영 장소로도 좋은 그곳에서 우리 일행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내려다 보니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던 티푸 술탄의 장수들을 앞에 세워두고 서있는 느낌이다. 마침 초등학교생쯤 되어 보이는 인도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내부 전시실을 둘러 보고 도시락 먹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다.

티푸 술탄의 별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눈에도 사원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다.

띠름빠띠 발라지 템플이라고 불리는 힌두 사원이다. 사원 안에는 맨발로 들어가야 하며, 신발 보관소는 사원 외부에 마련되어 있다. 내부에는 힌두교 신화 중 라마야나에 나오는 이야기가 본 건물 진입부 캐노피 천장에 조각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코살라국 왕 라마의 아름다운 아내 시타를 머리가 10개 팔이 20개 다리가 4개 달린 악의 신 라마나가 납치해 가는데 원숭이 신 허누만 군대가 라마왕을 도와 라마나를 멸한다는 내용이다. 기둥마다 힌두 신들의 조각이 있었으며, 그중에 부처도 하나의 신으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힌두교에서 신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 마치 동양의 유교 사상과 같이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쉬는 생활양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한다.

간단히 사원의 제사를 체험한 후 밖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원숭이 신 하누만 신화를 표현한 조각상



띠름빠띠 발리지 템플



쿠본파크에서 보이는 고등 법원

벵갈로르는 '정원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한 장소가 쿠본파

크이다. 멋들어지게 꾸며진 길과 나무들 사이로 고등 법원이나 주 정부 청사가 보이고, 공원에 마하트마 간디의 전신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시골에서 올라와 신혼여행 기념 사진을 찍는 커플도 보인다. 흰티 트인 대로로 나오면 까나따까주 정부청사가 그 위용을 드러낸다. 궁전과도 같은 건물 외형은 권위적이고 출입자들을 압도하면서, 청사 중앙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Government Work is God's Work.' 전 국민의 80%가 다신교인 힌두교도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도인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장 골목에 들렀다. Commercial Street으로 불리는 이 거리는 벵갈로르 최대 변화가인 MG Road의 한 갈래로서 온갖 상점들이 즐비한 상가 골목이다. 여행자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부르는 가격의 10분의 1부터 흥정하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상품마다 가격표를 붙여놓고 절대 깎아주는 법이 없다. 흥정의 기술이 부족한 탓인지, 웃돈을 부르는 행태가 사라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찰제 홍보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선입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인천 공항으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벵갈로르 공항으로 출발했다. 입국시 겪었던 비좁은 공항 시설을 떠올리니, 그 공항을 거쳐 가는 일 자체가

이번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고비처럼 느껴진다. 벵갈로르에 세워질 새 공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짐작케 한다. 인도 벵갈로르에서의 짧은 3박 4일 동안 인도인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이 도시가 외형적인 비즈니스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복잡한 인도의 한 도시-벵갈로르가 변모하는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머지않아 원하는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더 자란 코끼리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주)창·민우구조컨설턴트 권오성



까나따까주 정부청사 전면